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2호 [무계 제25385호] 주1 05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원예하는 청년대표동지들!
나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는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전체 청년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청년대표단 성원들을 축하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제일조선청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청년들과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불철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입니다.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청년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실현하는데서 청년동맹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서 당과 군대와 함께 청년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동맹이 강하면 이 세상 두려울것이 없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밝히신 당, 군, 청에 관한 사상을 구현하여 전당,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함께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갈 때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될것입니다. 전당과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강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진로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근본 담보로 됩니다.
청년동맹은 전 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기치 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청년동맹 안에 당의 유일적평도체제를 철저히 세우야 하였습니다.

대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넉넉을 반영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함께 모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것은 우리의 청년동맹을 영원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드물지 않는 기쁨을 마련한 일대 사변이며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투쟁전통을 이어 당의 평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총정의 대회, 청년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전선에 힘있게 불러일으킨 총진군대회이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대표동지들!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뜻깊은 대회장의 연단에 서고보니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시고 자랑높은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정모의 정이 가슴뜨겁게 안겨옵니다. 청년동맹이 걸어온 70년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평도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만드는 조선청년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애국헌신이 수놓아온 역사입니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사상을 제시하시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청년사업을 결속결속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시선과 탁월하고 세련된 평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맡겼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혁명평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으며 세상에 볼드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입니다.
참으로 조선청년운동은 수령님들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평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입니다.
주체의 청년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자랑찬 년대들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 영웅적위훈이 깃들여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였습니다. 가뭇침처럼 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참군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움으로써 영웅조선의 건국신화를 창조하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충실한 청년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복구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린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 영웅조선의 기적을 안아왔습니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관가름하던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시기에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평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주체혁명의 명백과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은 당의 믿음 이면 지수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격전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새 세대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당중앙집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판철의 혁명정신이며 오늘의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본격적인 혁명정신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역사와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되었으며 당의 두리에 천진만경의 성세를 이룬 천하무적의 청년대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부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장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한탄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아낌없이 바친 전세대 청년들에게 경의를 드리며 오늘날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의 위훈을 펼쳐서 새겨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대표동지들!
오늘 청년동맹앞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착후대, 이극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펼칠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청년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 이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불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입니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청년동맹은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동맹일꾼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총성을 바쳐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을 청년운동의 승리의 기치로, 청년동맹강화발전의 근본지침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수령님들의 사상과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판철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켜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평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동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의 결정, 지시가 청년동맹중앙으로부터 하부단계까지 제때에 전달됨되고 즉시에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습니다.
청년동맹은 사상교양단체이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청년동맹의 기본임무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이 행사나 경제실무사업에 달려들어가면서 자기의 본선임무인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없으며 청년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청년동맹이 무기력한 조직으로 될수 있습니다.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는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입니다.
청년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자랑분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무사로 역세게 키우며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의 넉과 기상이 나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의 모든 형식과 계기를 통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2 번 으 로 계 속